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3년 12월

---

## 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	5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	29
제3장 국내경제전망 .....	43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51

---

## 부록

주요경제통계 .....	55
--------------	----

**한국경제연구원**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허찬국

배상근

김창배

서준석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

##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주요국의 경제동향 및 전망
2. 국제금융시장: 금리 및 환율
3. 원자재가격

---

## 제3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

##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 부록 주요경제통계



##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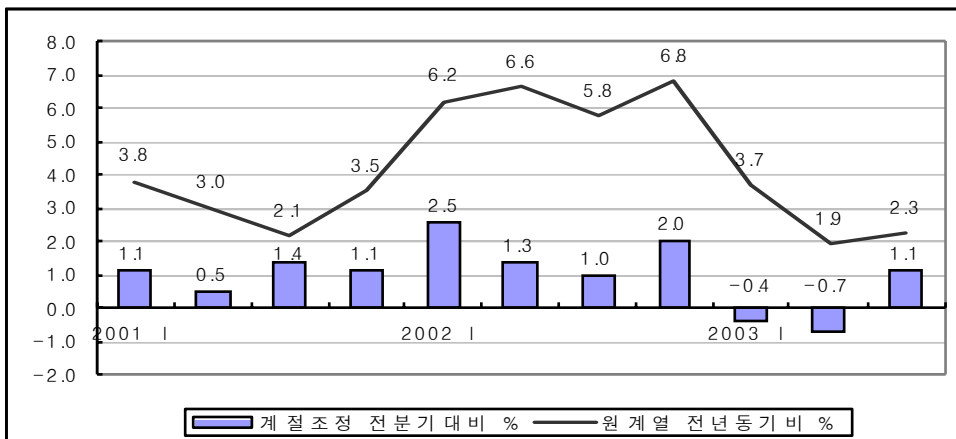
# 국내경제동향

### 1. 실물부문

경기개선 조짐이 보이나 경제심리는 여전히 위축

- 상반기중 2분기 연속 전분기대비 (-)성장을 보인 우리경제가 3/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플러스 성장
  - GDP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2/4분기 1.9%에서 3/4분기에는 2.3%로 소폭 상승
  - 계절조정 전분기증가율도 2/4분기(-0.7%)에서 3/4분기에는 1.1%로 상승

<그림 1> 실질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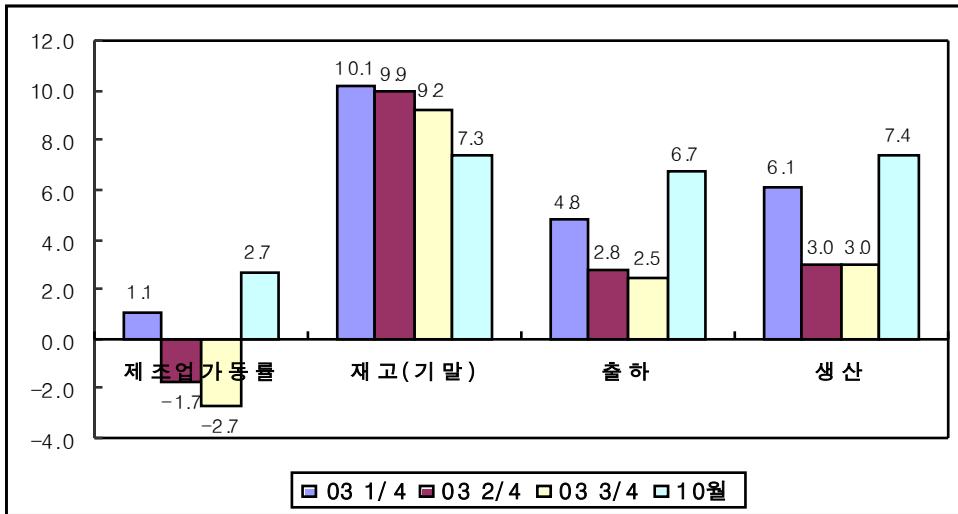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산업생산 증가, 가동률 상승, 재고감소 등 경기회복기의 모습을 보여줌

- 생산증가율 : 0.7%(7월) → 1.5% (8월) → 6.7%(9월) → 7.4%(10월)
- 제조업가동률 : -5.2%(7월) → -4.3% (8월) → 1.4%(9월) → 2.7%(10월)
- 재고 : 9.2%(7월) → 8.7% (8월) → 9.2%(9월) → 7.3%(10월)

<그림 2> 산업활동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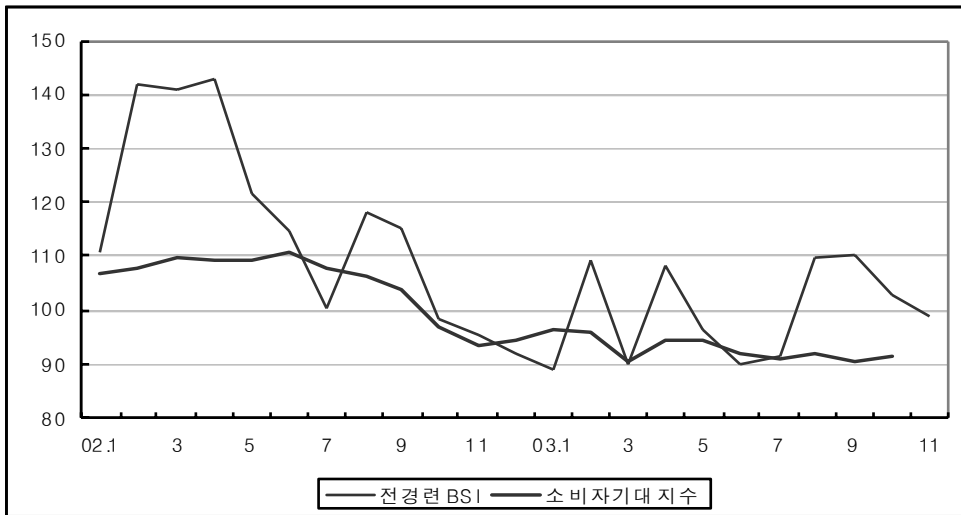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여전히 위축

- 전경련BSI는 11월 들어 다시 100이하로 하락하는 등 금년 내내 기준치(100)을 전후로 등락 지속
- 소비자대지수도 여전히 기준치(100) 이하를 지속

<그림 3> 주요 경제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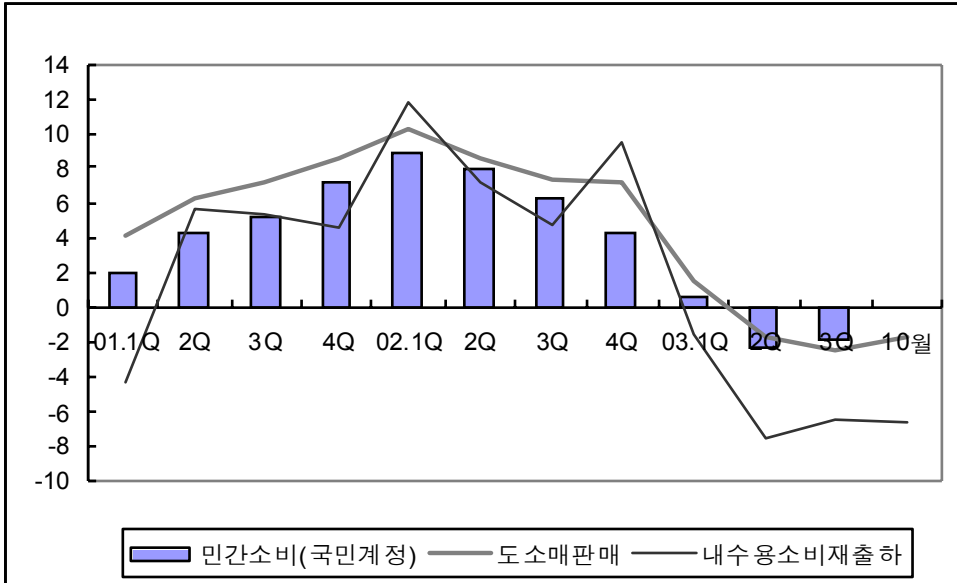
주 : 전경련BSI는 해당월에 조사한 다음달 업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전망  
 소비자기대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6개월후의 소비자들의 기대심리

**소비감소세 지속**

- 3/4분기중 민간소비(국민계정) 증가율이 2/4분기에 이어 마이너스를 보이고 도소매판매액도 3월 이후 10월까지 연속 8개월 감소하는 등 소비부진 현상 지속
  - 민간소비: 0.7%( '03 1/4) → -2.2%(2/4) → -1.9%(3/4)
  - 도소매판매액: 1.5%( '03 1/4) → -1.7%(2/4) → -2.5%(3/4) → -1.7%(10월)
  - 내수용소비재출하지수도 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

<그림 4> 주요 소비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 통계청

### 설비투자 부진 완화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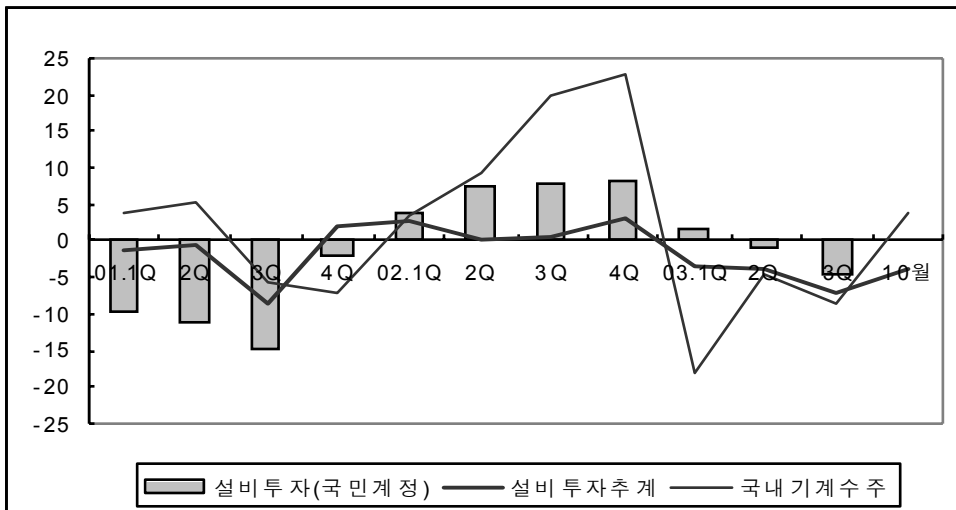
-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은 둔화
  - 설비투자 증가율: 1.6%( '03 1/4) → -0.8%( '03 2/4) → -4.7%(3/4)
  - 설비투자추계(통계청)는 7월중 큰 폭(-11.1%)으로 감소한 이후 감소 폭이 크게 둔화 (-7.8%(8월) → -2.2%( '9월) → -3.8%(10월) )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9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고 기계류수입도 9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어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개선될 조짐



- 국내기계수주: -13.1%( '03 7월) → -23.8%(8월) → 17.3%(9월) → 4.0%(10월)
- 기계류수입: -0.6%( '03 7월) → -5.5%(8월) → 15.2%(9월) → 26.9%(10월)

<그림 5> 주요 설비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통계청

건설투자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증가세 둔화 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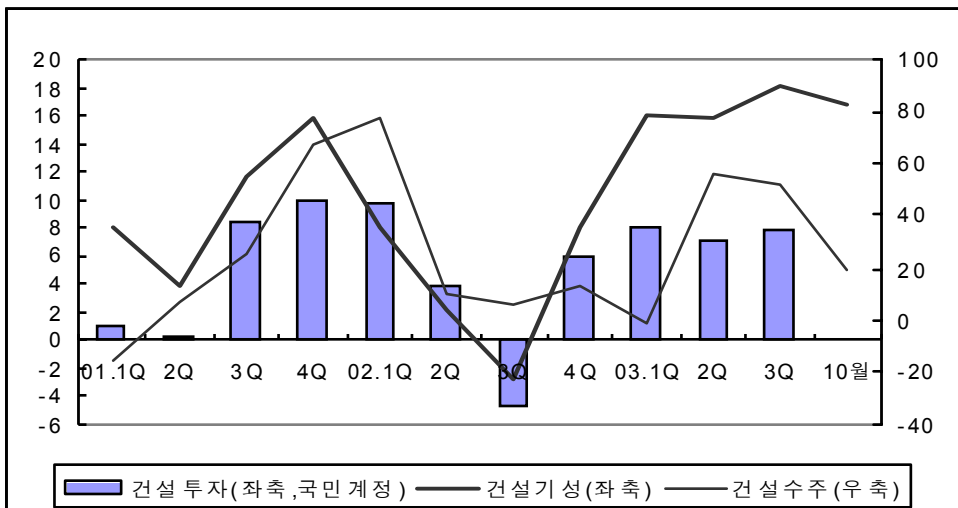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
  - 건설투자는 2/4분기 7.2%증가한데 이어 3/4분기중에도 7.8%증가
  - 건설기성(통계청)도 3/4분기(18.1%)에 이어 10월(16.9%)에도 두 자리 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축허가면적도 8월 이

후 3개월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수주: 80.3%( '03 7월) → 44.2%(8월) → 38.3%(9월) → 18.8%(10월)
- 건축허가면적: 31.8%( '03 7월) → -10.8%(8월) → -31.5%(9월) → -27.2%(10월)

<그림 6> 건설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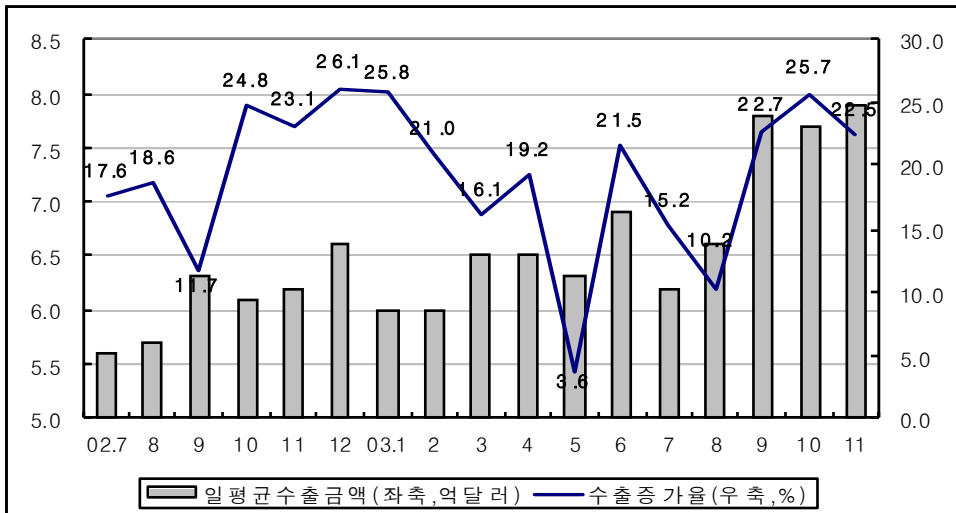
## 2. 대외거래부문

### 수출증가세 확대

- 수출(10~11월중)은 전년동기비 24.1%상승하는 등 호조 지속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14.1%( '03 2/4) →16.1%(3/4) → 24.1%(10~11월)
  - 일평균수출액: 2003년 9월 이후 3개월 연속 7억달러대 지속

<그림 7> 수출증가율과 일평균수출금액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백만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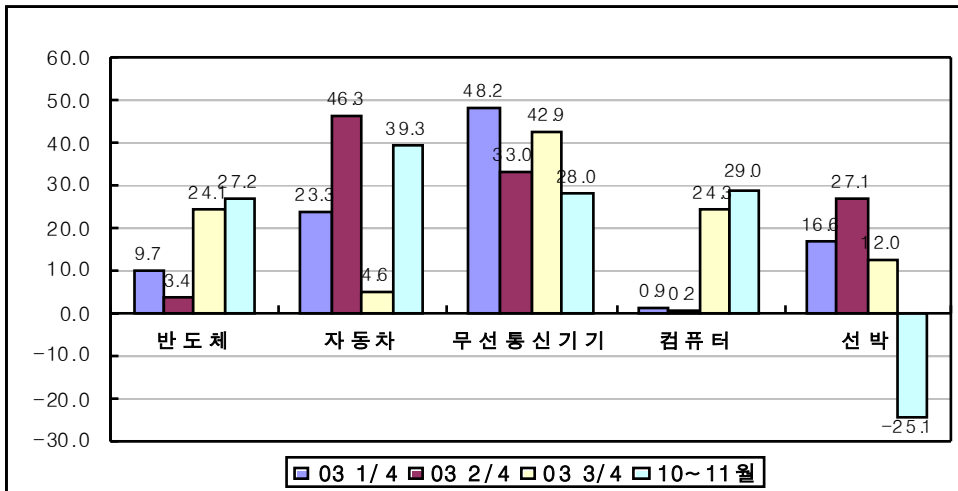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 주요 품목별(10~11월중)로는 무선통신기기 수출호조(증가율은 다소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수출의 증가세도 확대
  - 무선통신기기는 대중국수출(-42.5%)이 부진하였으나 미국, EU에 대한 수출급증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
  - ※ 무선통신기기의 대중국수출이 부진한 것은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업체들의 약진과 전년동월 수출급증( '02년 10월 592.9%, 11월 473.5%)에 기인
  - 반도체는 대중, 대일수출호조로 컴퓨터는 LCD모니터 등의 수출급증에 기인하여 증가세가 확대
  - 자동차는 내수위축에 따른 업계의 수출증대 노력과 수출차종의 고가화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으로 미국, EU와 함께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임

<그림 8>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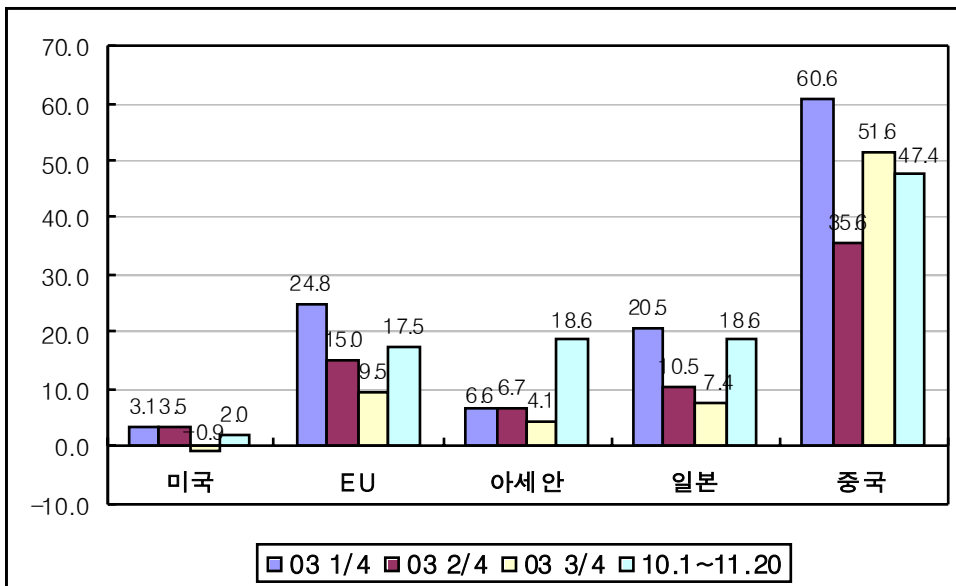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 주요 지역별(10.1~11.20)로는 대중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아세안, EU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두 자리수로 확대. 반면 대미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침
- 대미수출(2.0%)은 미국 경기회복 가시화로 자동차와 반도체, 휴대폰 등 주요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섬유류, 철강제품, 컴퓨터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낮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 9>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자료 : 산업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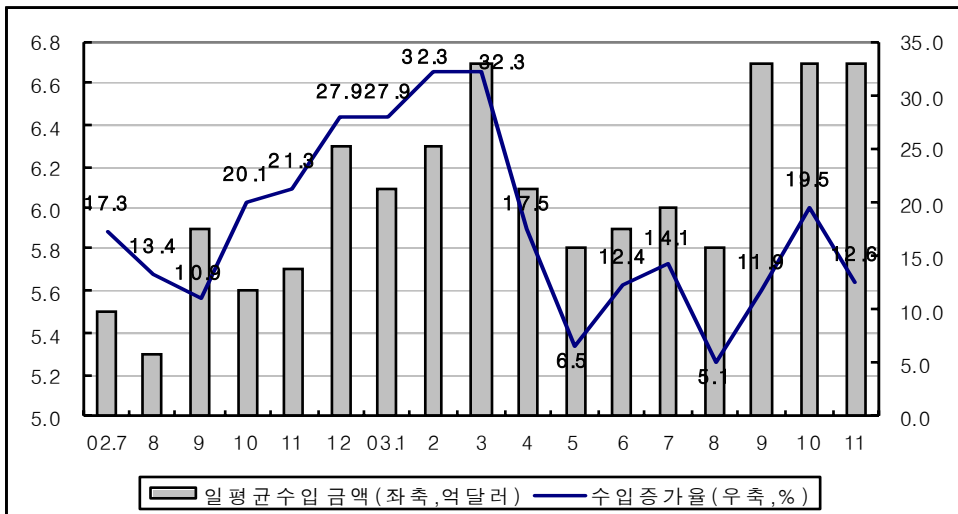
수입 : 증가세 상승

■ 수출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수입증가율도 상승

- 3/4분기 10.4%로 둔화되었던 수입증가율은 10~11월중에는 16.1%로 상승
- 일평균수입액도 9월 이후 6.7억달러대로 상승

<그림 10> 수입증가율과 일평균수입금액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백만USD



자료 : 산업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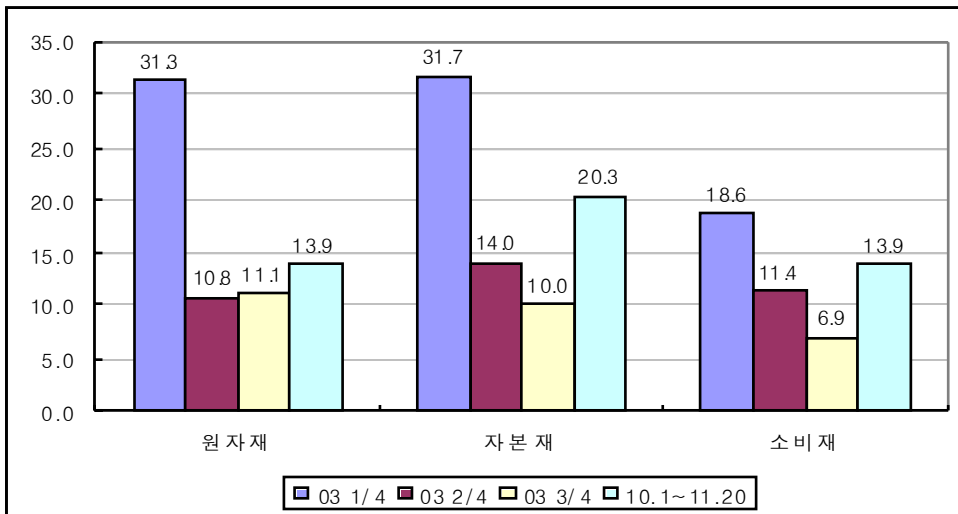
■ 용도별로는

- 원자재수입이 2/4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 2/4분기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인 자본재와 소비재수입 증가율이 10~11월중에는 상승
- 자본재수입비중이 특히 빠르게 상승

※ 원자재비중: 51.8%( '03년 1/4)→ 49.6%(2/4)→ 49.4%(3/4)→17.1%(10월)  
 자본재비중: 36.1%( '03년 1/4)→ 37.7%(2/4)→ 37.6%(3/4)→39.0%(10월)  
 소비재비중: 11.2%( '03년 1/4)→ 12.2%(2/4)→ 12.1%(3/4)→12.2%(10월)

<그림 11> 용도별 수입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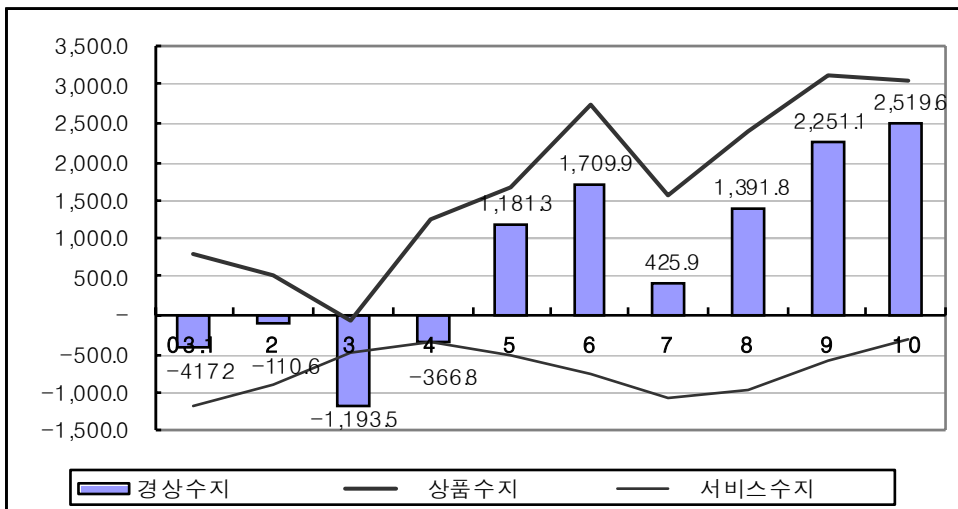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경상수지 : 7월 이후 흑자규모 다시 확대

- 8월 이후 상품수지의 흑자규모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크게 확대
  - 상품수지는 수출호조가 지속된 반면 수입은 내수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흑자 폭이 크게 증가
    - ※ 상품수지(달러) 15.7억(7월) → 23.7억(8월) → 31.2억(9월) → 30.7억(10월)
  - 서비스수지는 여름휴가철 이후 여행수지적자가 감소하면서 적자규모 축소
    - ※ 서비스수지(달러) -10.9억(7월) → -9.9억(8월) → -5.9억(9월) → -3.3억(10월)
    - 여행수지(달러): -6.9억(7월) → -6.7억(8월) → -4.0억(9월) → -2.4억(10월)

<그림 12> 경상수지 추이

단위 : 백만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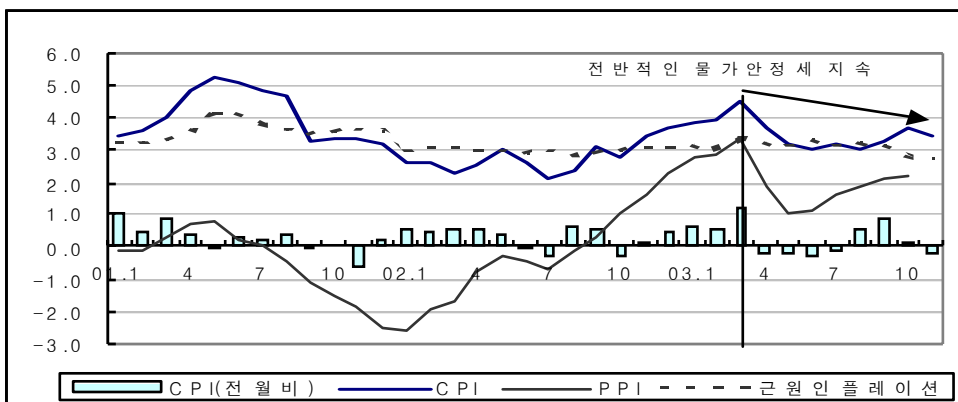
### 3. 물가부문

#### 4월 이후의 물가 안정 추세를 지속

- 일조량 부족, 태풍 등 기상조건 악화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으나 10월 이후 다시 안정세로 전환됨으로써 4월 이후의 물가안정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금년 4~7월중 연속 4개월 마이너스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전월비 증가율이 8~9월중에는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태풍피해로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음.
  - 그러나 10월 이후 다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전월비 증가율이 10월에는 0.1%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며 11월에는 마이너스(-0.2%)로 반전
- 근원인플레이션율(농산물및석유류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도 안정세를 지속
  - 근원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비): 3.2%( '03 1/4) → 3.2%(2/4) → 3.1%(3/4) → 2.8%(10~11월)

<그림 13> 물가 추이

단위 : 전년동월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4. 통화 · 금융부문

##### 최근 총유동성 증가율 둔화 추세

- 작년 12~13%대를 지속했던 M3의 증가세가 9월중에는 7.3%(잠정)를 기록하였고 10월중에는 5%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최근 총유동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
- (신)M1과 (신)M2 증가율도 금년에 들어서 증가세 둔화추세가 지속

<표 1> 주요 통화지표 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신)M1	18.0	26.8	27.9	20.3	16.1	22.5	10.3	5.5	6.6	6.9	6.8	5초반
(신)M2	6.9	9.5	12.4	10.9	13.0	11.5	13.1	9.1	6.5	6.7	5.7	4초반
M3	9.6	12.1	13.7	12.6	13.2	12.9	12.4	9.6	8.0	7.9	7.3p	5후반

자료: 한국은행

##### 가계부채 증가세 및 연체율 상승세 지속

- 2003년 3/4분기중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이 2/4분기 2,525억원의 감소에서 8,613억원의 증가로 전환
- 가계대출이 3/4분기중 6조9,919억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가계신용 연체율은 완만한 상승 추세
  - ※ 3/4분기중 가구당 가계신용잔액은 2,921만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

- 예금은행대출은 가계대출 억제조치, 투기지역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반면, 농·수협이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의 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일련의 자산건전성 감독강화 등에 따라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여신전문기관 대출의 감소세 지속
- ※ 최근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이 낮은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협동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향 반영

<표 2> 형태별 가계신용 잔액 추이

단위 : 10억원, %

	2002년				2003년		
	3말	6말	9말	12말	3말	6말	9말
가계신용 잔액 (A+B)	368,137.0 (33.3)	397,470.4 (34.3)	424,260.6 (34.1)	439,059.8 (28.5)	439,339.3 (19.3)	439,086.8 (10.5)	439,948.1 (3.7)
	<26,463.8>	<29,333.4>	<26,790.2>	<14,799.2>	<279.5>	<-252.5>	<861.3>
가계대출 잔액 (A)	328,829.0 (31.8)	354,400.4 (33.7)	379,939.8 (34.2)	391,119.3 (28.9)	396,753.5 (20.7)	402,565.6 (13.6)	409,557.5 (7.8)
	<25,309.7>	<25,571.3>	<25,539.4>	<11,179.5>	<5,634.1>	<5,812.2>	<6,991.9>
예금은행	174,510.0 (54.2)	192,552.9 (53.1)	209,793.9 (51.3)	222,016.5 (41.7)	227,048.1 (30.1)	236,702.3 (22.9)	245,551.8 (17.0)
	<17,797.5>	<18,042.9>	<17,241.0>	<12,222.6>	<5,031.6>	<9,654.2>	<8,849.4>
신용협동기구 <sup>1)</sup>	40,187.3	42,013.4	44,204.2	45,727.0	48,007.3	51,468.7	56,374.5
여신전문기관	49,802.0 (35.9)	56,139.1 (41.9)	61,450.7 (42.9)	57,106.3 (30.8)	54,588.5 (9.6)	46,217.4 (-17.7)	39,379.8 (-35.9)
	<6,151.3>	<6,337.2>	<5,311.6>	<-4,344.4>	<-2,517.8>	<-8,371.0>	<-6,837.6>
판매신용 잔액 (B)	39,308.0 (47.0)	43,070.0 (39.2)	44,320.8 (33.8)	47,940.5 (25.7)	42,585.9 (8.3)	36,521.2 (-15.2)	30,390.5 (-31.4)
	<1,154.0>	<3,762.1>	<1,250.8>	<3,619.7>	<-5,354.6>	<-6,064.7>	<-6,130.6>
가구당 가계신용 잔액 <sup>2)</sup> (만원)	2,482	2,679	2,860	2,915	2,916	2,915	2,921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주 : 1)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2) 가구수는 통계청의 "주계가구" 통계를 이용

3)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는 분기중 증감액

- 판매신용의 경우 7월 12일 승용차,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감소세 지속
- 경기침체로 인한 근로소득감소 등으로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가계의 채무부담이 확연하게 완화되기 어렵고 강도 높은 가계대출 억제조치로 인해 가계신용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표 3> 연체율 및 개인신용불량자수 추이

단위: 기말기준, %, 만명

	2002년				2003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은행가계대출연체율 <sup>1)</sup>	1.43	1.30	1.61	1.50	2.06	2.01	2.27
신용카드 연체율 <sup>2)</sup>	29	38	5.1	6.6	9.6	9.5	11.2
개인 신용불량자 수	245.5	226.0	245.5	263.6	295.7	322.5	350.2

자료: 한국은행, 2003년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주: 1) 예금은행 기준(신탁계정 포함)

2) 전업사의 30일 이상 관리자산 기준

**‘신용불량가족’ 및 ‘생계형’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불안 가중**

- 10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359만6천명으로 전 국민(4,792만5천명: 2003년 추계)의 7.5%,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2,321만8천명)의 15.5% 차지
  - ※ 현재 신용불량자 기준: 연체금액 30만원,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는 228만명을 기록하여 전체 신용불량자의 63.5%를 차지하여 신용카드의 남용이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요 요인

■ 향후 신용불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상존

- 현재 4개 이상의 신용카드소지자 988만명 중 약 10% 수준인 100만명 가량이 ‘돌려막기’ 를 하고 있다고 추정되어, 만일 향후 어느 한 카드사가 부실화되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신용한도를 크게 제한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가능성 상존
- 또한 6월말 현재 신용불량 미등록자 중 30만원이상 1개월이상 연체자인 잠재 신용불량자가 108만8천명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면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 존재

<표 4> 신용불량자 추이

단위 : 만명

	'00말	01말	'02말	03.3말	'03.6말	'03.9말	'03.10말
전체 신용불량자	208	245	264	296	323	350	360
신용카드관련	78(38%)	104(43%)	150(57%)	177(60%)	199(62%)	220(63%)	228(64%)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2003년 10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정보 관리현황

- 20대와 30대 신용불량자가 각각 70만9천명(19.7%)과 108만1천명(30.1%)을 기록하여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 정도 차지
- 최근 30대미만의 ‘사치형’ 신용불량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증가 추세
  - ※ 전체 신용불량자(천명): 2,957( '03.3월) → 3,225(6월) → 3,502(9월) → 3,596(10월)
  - ※ 20대 신용불량자(천명): 575( '03.3월) → 636(6월) → 690(9월) → 709(10월)
  - ※ 20대미만 신용불량자(명): 5,428( '03.3월)→ 5,831(6월)→ 5,770(9월)→ 5,488(10월)
- 최근의 30대 여성 신용불량자 급증은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생계를 위해 아내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신용불량가족’ 양산 추세를 반영
  - ※ 30대 여성 신용불량자(천명): 293( '03.3월) → 336(6월) → 382(9월) → 399(10월)

- 8월말 현재 신용회복지원신청자 24,543명중 14,850명 (60.5%)의 신청사유가 ‘생활고’로서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중 단일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액이 1천만원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인 80만6천명 (24.1%)은 신용회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연체액이 3천만원이상의 다중채무자인 74만6천명 (22.3%)은 신용회복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
- 7월말 현재 2개 이상 금융회사의 연체자인 다중채무자가 전체의 69.1%인 231만명 인데 반하여, 연체액이 1천만원미만의 소액연체자가 163만6천명으로 48.9%를 차지하여 신용불량자를 분류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 ※ 5백만원 미만: 110.5만명(33.0%), 5백~1천만원: 53.1만명(15.9%), 1~2천만원: 57.4만명(17.2%), 2~3천만원: 32.5만명(9.7%), 3천만원 이상: 81.1만명(24.2%)

<표 5> 2003년 7월말 현재 신용불량현황(금액별 등록금융회사수 및 연령분포)

단위 : 만명

	등록금융회사 수			연령					합계
	1개	2~5개	6개이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500만원미만	62.7	46.1	1.7	0.43	34.2	30.7	26.0	19.2	110.5
500~1,000만원미만	17.9	32.0	3.2	0.1	10.6	16.0	15.5	10.8	53.1
1,000~2,000만원미만	12.1	32.6	12.7	0.06	9.4	18.2	17.9	11.9	57.4
2,000~3,000만원미만	4.3	14.4	13.8	0.01	4.7	10.6	10.5	6.7	32.5
3,000만원이상	6.5	26.0	48.6	0.006	7.2	23.9	29.8	20.1	81.1
합계(명)	103.5	151.1	80.0	0.6	66.1	99.4	99.7	68.7	334.6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 2003.8.25

- 한편, 2차례 단행된 신용사면 대상자 중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 비율이 20%가 넘어 신용사면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 (기준: 2003년 3월말 현재)
- ※ 2000년 1월 17일: 11.8만명 중 2.8만명 재등록 (재등록률: 23.4%)
- 2001년 5월 1일: 37.5만명 중 7.7만명 재등록 (재등록률: 20.5%)
- <금융감독원 5월 20일 민주당 조재환 의원 질의 답변자료>

**신용카드사 경영악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우려**

- 작년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 정부의 내수진작책 등의 부작용으로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 및 영업실적 악화 지속
- 신용카드 전업 8개사가 큰 폭의 현금대출자산의 감소와 함께 부실자산으로 인한 대손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금년 1~9월중에 4조1,44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시현.
- ※ LG와 삼성의 당기순손실 (각각 1조168억원과 1조332억원)이 전체의 49.5% 수준

**<표 6> 당기순이익 및 총당금 적립현황**

단위: 억원

	' 021~9월	' 031~9월				증 감 액 (전년동기 대비%)
			' 03.1분기	' 03.2분기	' 03.3분기	
당기순이익	10,710	△41,449	△9,519	△16,440	△15,490	△52,159 (△487.0)
총당금적립전	39,430	35,346	12,010	15,365	7,971	△4,084 (△10.4)

자료: 금융감독원, '03년 3분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 총채권 규모의 감소와 함께 연체채권의 회수실적이 미흡하여 연체채권비율이 작년말 6.0%에서 금년 9월말에는 11.2%로 상승

- 신용카드사의 적극적인 대환대출로 인해 금년 9월말 현재 15조3,104억의 대환대출잔액을 기록하였고 작년말 5조7,112억원에 비해 3배가량 급증

<표 7> 8개 전업 신용카드사 총채권 연체현황

단위 : 억원

	' 02.12	' 03.3	' 03.6	' 03.9
총채권(A)	830,069	787,564	701,407	634,185
연체채권(B)	49,535	74,397	65,672	71,221
연체율(B/A)	6.0%	9.5%	9.4%	11.2%
대환대출잔액	57,112	88,287	114,555	153,104

자료 : 금융감독원 03년 3분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주 : 관리자산 기준

- 최근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LG카드에 대한 2조원의 자금지원으로 연내에는 카드사 문제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도 카드사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므로 향후 금융위기 방지 대책 마련 시급

### 장단기 금리만기구조 정상화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등의 장기시장금리가 10월 초순 이후 채권발행물량 확대, 국내외 경기회복기대 등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여 금리만기구조가 정상화됨
  - 이는 미국 3/4분기 국내총생산이 전분기대비 8.2% 상승하는 등 미국경제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내년 세계경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월별 사상최고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수출 호조 등에 기인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이 9월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단기시장금리인 CD(3개월)



나 CP(3개월)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10월 이후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해소되었으며 장단기 금리차도 점차 확대

<표 8> 주요 금리 추이

단위: 월말기준, 연리 %, %p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2월	12월	1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콜(익일)(A)	6.01	4.00	4.52	4.25	3.99	4.09	3.74	3.70	3.75	3.83	3.77	3.77
CD(91일)	6.87	4.86	4.90	4.54	4.30	4.30	3.96	3.85	3.89	4.05	4.28	4.32
CP(91일)	7.26	5.07	5.03	5.21	4.79	4.67	4.37	4.14	4.11	4.15	4.45	4.48
국고채(3년)(B)	6.70	5.91	5.11	4.46	4.10	4.16	4.58	4.46	4.11	4.48	4.88	5.06
회사채(3년)(C)	8.13	7.04	5.68	5.32	5.21	5.45	5.87	5.60	5.05	5.32	5.60	5.76
B-A(%P)	0.69	1.91	0.59	0.21	0.11	0.07	0.84	0.76	0.36	0.65	1.11	1.29
C-A(%P)	2.12	3.04	1.16	1.07	1.22	1.36	2.13	1.90	1.30	1.49	1.83	1.99
C-B(%P)	1.43	1.13	0.57	0.86	1.11	1.29	1.29	1.14	0.94	0.84	0.82	0.70

자료: 한국은행, 일일주요금리동향 (www.bok.or.kr)

**자금사정: 기업 자금조달 다소 회복**

- 3/4분기 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식 및 CP순발행 등을 중심으로 2/4분기에 비해 다소 회복

-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작년에 비해 미약하나 상반기에 비해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
- 회사채는 시장금리 저점통과 인식확대, 기업의 장기자금 선확보 등과 함께 회사채 프리미엄(회사채 유통수익률 -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하락 등에 따른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으로 인해 10월부터 순발행 기조로 전환

<표 9> 기업<sup>1)</sup>의 자금조달 추이

단위 : 기간중 증감, 조원

	2001년	2002년	2003년						
	연중	연중	1/4	2/4	3/4	8월	9월	10월	11.1-10일
은행대출 <sup>2)</sup>	-0.1	37.2	16.4	11.0	7.4	1.7	0.7	2.6	1.2
(대 기업)	-120	0.1	1.8	-1.0	0.1	-0.2	-0.8	-0.3	0.3
(중소기업)	119	37.1	14.7	11.9	7.3	1.9	1.4	2.9	0.9
회사채순발행	8.2	8.1	-1.0	-1.0	-3.1	-1.0	-0.8	0.2	0.2
CP순발행 <sup>3)</sup>	1.4	-4.4	2.5	-3.7	3.1	1.5	0.4	-0.3	-
주식발행	4.2	4.4	0.5	0.4	0.8	0.1	0.4	0.3	0.1
(기업공개)	1.4	1.7	0.2	0.1	0.2	0.0	0.1	0.1	0.1
(유상증자)	2.8	2.7	0.3	0.3	0.6	0.1	0.3	0.2	0.1
계	138	29.2	18.4	6.6	8.2	2.3	0.7	2.8	1.5

자료 : 한국은행,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11월)

주 : 1) 금융기관 제외

2) 신탁계정 포함

3) 증권사 및 은행증권 종금계정(우리은행 종금계정 제외) 기준

주가 상승세 지속

- 주가는 미국주가 상승, 4/4분기 국내경기저점론,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상승세 지속

<표 10> 우리나라 및 미국의 주가 추이

	2002년	2003년						
	12말	3말	6말	9말	10말	11말	12 2	전년말대비(%)
종합주가지수	627.55	535.70	669.98	697.52	782.36	796.18	807.78	+28.7
코스닥지수	44.36	37.77	49.75	44.86	46.38	45.84	47.08	+6.1
다우존스지수	8,342	7,992	8,985	9,275	9,801	9,782	9,899	+18.7
나스닥지수	1,336	1,341	1,623	1,787	1,932	1,960	1,990	+49.0

자료 : 한국은행,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11월), 일별 주요 국제금융 동향

미국 달러화 약세로 원화가치 상승세 지속

- 미국 달러화 약세 기조와 함께, 9월 20일 ‘유연한 환율정책’ 을 결의한 G7 재무장관 회의 의 영향으로 원/달러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여 1,150원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 차액결제선물환(NDF) 매입세, 외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으로 10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0.3% 절상에 불과한 1,183.1원 기록
  - 원/엔 환율은 10월 들어 일본경제 회복세 등에 따라 원화에 비해 빠른 속도로 엔화가 절상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10월말 현재 1,085.9원 시현

<표 1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단위 : 원,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4	2/4	3/4	10월
원/달러 <sup>1)</sup>	1264.5 (-10.0)	1313.5 (-3.7)	1186.2 (+10.7)	1254.6 (-5.5)	1193.0 (-0.6)	1150.1 (+3.1)	1183.1 (+0.3)
원/100엔 <sup>2)</sup>	1101.8 (+0.9)	1000.4 (+10.0)	999.8 (+0.1)	1053.6 (-5.1)	996.8 (+0.3)	1038.1 (-3.7)	1085.9 (-7.9)

- 주 : 1) 기말종가 기준(평균은 매매기준율 기준) 2) 동경시장종가 기준  
 3) 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내는 전년(말, 평균)비 절상(+), 절하(-)율(%)

## 제 2 장

#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 1.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

미국 : 내년, 회복세 가속 전망

- 3/4분기 GDP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은 전분기(3.3%)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8.2%를 기록
  -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급증(26.5%)으로 소비지출(6.4%)의 증가와 기업 설비투자(16.7%)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이외에도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수입은 크게 감소한 한데 기인. 즉, 3/4분기 수출이 전분기 -1.0%에서 8.8%로 크게 증가한 반면, 3/4분기 수입은 전분기(11.0%)보다 크게 감소한 1.5%증가하는데 그침.
- 4/4분기중에도 소비와 투자관련 지표들의 회복세 지속
  - 10월 내구재수주는 전월비 3.3%증가하여 9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11월 ISM제조업 지수는 신규주문과 생산확대로 20년만에 최고치 기록
  - 11월 신규실업수당자수(36.1만명)도 전월(38.1만명)에 비해 크게 하락. 11월 실업률도 전월비 0.1%p 감소하여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의 영향으로 11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작년 9월이후 최고수준을 기록

<표 12> 미국의 경제성장과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만명

	2001년	2002년		2003년						
		연중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실질GDP성장률 <sup>1)</sup>	0.3	2.4	1.4 (2.9)	1.4 (2.0)	3.3 (2.5)	8.2 (3.5)	--	--	--	--
산업생산	-3.4	-0.6	-0.5	0.2	-1.0	1.0	0.2	0.5	0.2	..
제조업가동률	77.4	75.6	75.2	75.1	74.1	74.7	74.6	74.9	75.0	..
소매판매 (자동차제외)	2.9 (2.9)	3.1 (3.7)	0.8 (1.0)	0.4 (1.7)	0.4 (0.2)	0.7 (0.8)	1.0 (1.1)	-0.4 (0.2)	-0.3 (0.2)	0.5p ..
내구재수주 (비국방자본재) <sup>2)</sup>	-10.6 (-12.9)	-1.7 (-7.1)	-2.8 (-0.3)	0.7 (3.5)	-0.2 (0.8)	1.2 (2.0)	-0.1 (0.7)	2.1 (2.9)	3.3 (2.4)	.. ..
CPI상승률 <sup>3)</sup>	2.8	1.6	2.2	2.9	2.2	2.2	2.2	2.3	2.1	..
경기선행지수 <sup>4)</sup>	108.6	110.9	110.9	110.8	111.4	113.1	113.2	113.2	113.6	..
실업률	4.8	5.8	5.9	5.8	6.2	6.1	6.1	6.1	6.0	5.9
신규실업수당청구자수	40.6	40.4	40.4	40.5	43.3	40.5	40.1	40.5	38.1	36.1
소비자신뢰지수 <sup>5)</sup>	106.6	96.6	81.7	68.3	82.7	78.6	81.7	77.0	81.7	91.7
ISM제조업지수 <sup>6)</sup>	44.0 (48.5)	52.4 (55.1)	51.8 (54.6)	50.2 (52.1)	48.2 (55.3)	53.4 (64.5)	54.7 (65.1)	53.7 (63.3)	57.0 (64.7)	62.8 (60.1)

주 : 1) 전기대비연율,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2) 항공기 제외 3) 전년동기대비,

4) Conference Board (1996=100) 5) Conference Board(1985=100)

6) 기준치=50, 괄호안은 서비스업 지수임.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방준비위원회, 공급관리협회(ISM)

- 미국경제 성장률은 금년 3%에서 2004년에는 4.0%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경기회복세의 확산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개인소득세율인하에 따른 소비 활성화 기대, 또한 IT관련 신규투자의 증가로 설비투자가 확대될 전망
  - OECD와 전국기업경제인연합회(NABE)는 내년 성장률을 종전 4.0%에서 각각 4.2%, 4.5%로 상향 수정전망

**일본 : 내년 완만한 회복세 전망**

-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6%(연율2.2%)증가하여 7분기 연속 플러스
  - 3/4분기 총수출이 전분기(1.5%)에 비해 증가세(2.8%)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기인.
  - 10월중 소매판매는 31개월만에 전월비 0.2% 증가
  - 10월중 소비자물가가 98.4월이후 처음으로 0.1%상승하여 디플레이션 감소
  - 10월중 산업생산은 0.8%상승하였으며,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는 10월 중 4.0%(잠정치) 증가
- 미국경제 회복과 함께 내년 일본경제도 2% 내외의 회복세가 예상됨
  - OECD와 일본 14개 민간연구기관은 일본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2.6%~2.7%로, 2004년에는 1.8%~2.0%로 전망

<표 13>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기대비 (%)

	2001년	2002년		2003년					
		연중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실질GDP성장률 <sup>1)</sup>	0.4	0.1	0.4 (1.7)	0.5 (1.9)	0.9 (3.5)	0.6 (2.2)			
민간소비	1.7	1.4	-0.3	0.4	0.1	0.0			
설비투자	1.3	-4.9	3.6	2.5	4.7	2.8			
총수출	-6.1	8.2	4.7	0.5	1.5	2.8			
광공업생산지수	-6.5	-1.3	0.3	0.3	-0.7	1.3	-0.7	3.8	0.8
소매판매액 <sup>2)</sup>	-2.2	-3.9	-2.9	-1.3	-2.6	-2.3	-2.1	-1.7	0.2
민간키계수주	-6.2	-12.0	-0.1	5.8	3.4	-3.0	-4.3	-1.6	4.0p
실업률	5.0	5.4	5.4	5.4	5.4	5.2	5.1	5.1	5.2
소비자물가 <sup>2)</sup>	-0.7	-0.9	-0.5	-0.2	-0.2	-0.2	-0.3	-0.2	0.1

주 : 1) 괄호안은 전기대비연율, 2) 전년동기대비,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일본은행 등

**유로지역 : 2004년, 2% 내외의 성장 전망**

- 유로지역의 3/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4%성장하여 2분기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경기가 저점을 지나 점차 회복되는 모습
  - 역내경제의 침체를 주도하였던 독일, 프랑스 모두 3/4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이는 미국경제의 호전에 따른 수출증가가 큰 견인차



- 실물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증가로 심리지표는 개선
  - 유로지역의 3/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이 2/4분기에 이어 하락하는 등 실물부문이 부진하고 10월중 실업률도 8.8%로 7개월째 높은 수준을 유지
  - 11월중 제조업<서비스업>구매자관리자지수(PMI)도 전월 51.3<56.0>에서 52.2<57.5>로 상승하여 3년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독일의 11월 Ifo경기지수와 프랑스의 INSEE지수도 전월(94.3, 95)보다 높은 95.7, 100을 기록.
  
- 올해에는 내수부진으로 0.5%내외의 저성장이 예상되나, 2004년에는 2%내외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전망
  - 2004년에는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수출의 호조와 소비와 투자의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기구(OECD, IMF)와 투자은행들은 유로지역 성장률을 2% 내외로 전망.
  - 독일 경제는 올해 정체를 보이지만 2004년에는 1.5%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프랑스는 올해와 내년 각각 0.5%내외, 1.8%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표 14> EU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유로 지역	GDP성장률 <sup>1)</sup>	1.5	0.8	0.0 (1.1)	0.0 (0.8)	-0.1 (0.2)	0.4 (0.3)	-	-	-	-	
	산업생산 <sup>2)</sup>	0.3	-0.7	-0.2	0.0	-0.1	-0.0	1.2	-0.9	-0.3	..	
	소매판매	1.7	0.0	-0.1	0.1	0.3	-0.1	0.2	-0.4	0.0	..	
	실업률	8.0	8.4	8.6	8.7	8.8	8.8	8.8	8.8	8.8	8.8	
	CPI상승률 <sup>3)</sup>	2.3	2.3	2.3	2.3	2.0	2.1	1.9	2.1	2.2	2.0	
	PMI지수 <sup>5)</sup>	47.8 <51.6>	49.8 <51.6>	49.0 <50.5>	49.3 <48.9>	47.1 <47.9>	49.1 <51.9>	48.1 <50.2>	49.1 <52.0>	50.1 <53.6>	51.3 57.5	
독일	GDP성장률 <sup>1)</sup>	0.8	0.2	-0.0 (0.3)	-0.2 (0.4)	-0.2 (-0.7)	0.2 (-0.2)	-	-	-	-	
	산업생산 <sup>2)</sup>	0.8	-1.3	-0.4	0.5	-0.7	-0.1	3.5	-3.6	-0.3	..	
	소매판매	0.4	-1.6	-0.8	-0.1	0.7	-0.6	-1.3	-1.1	0.7	0.4	
	실업률	9.4	9.8	9.7	11.2	10.5	10.3	10.4	10.4	10.1	10.0	
	CPI상승률 <sup>3)</sup>	2.0	1.4	1.2	1.2	0.9	1.0	0.9	1.1	1.1	1.2	
	Ifo경기지수 <sup>6)</sup>	89.9	89.0	87.4	88.1	87.8	90.7	89.3	90.9	92.0	94.3	
프랑스	GDP성장률 <sup>1)</sup>	2.1	1.2	-0.1 (1.4)	0.1 (0.7)	-0.3 (-0.4)	0.4 (-0.2)	-	-	-	-	
	산업생산 <sup>2)</sup>	0.9	-1.4	-0.5	0.1	-0.6	0.3	0.4	-0.5	0.9	..	
	소비지출	3.7	1.2	0.6	1.8	-0.6	0.6	1.3	-2.5	2.9	1.6	
	실업률	8.7	9.0	9.2	9.4	9.5	9.6	9.6	9.6	9.7	9.7	
	CPI상승률 <sup>3)</sup>	1.7	1.9	2.1	2.4	1.9	2.0	1.9	1.9	2.1	2.2	
	Insee지수 <sup>7)</sup>	100.9	96.5	97.0	97.0	91.7	92	92	92	93	95	

주 :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2) 건설업 제외 3) 전년동기대비 4) 1995=100

5) 기준치=50, 제조업, < >내는 서비스업 6) 1991=100 7) 기준치=100

자료 : 유로통계청, 독일연방통계청, Ifo 경제연구소, 프랑스통계청 등

**중국 : 2004년에도 고성장세 지속 전망**

- 소비와 투자의 빠른 증가세와 수출호조로 3/4분기 실질GDP성장률은 지난 2/4분기 (6.7%)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된 9.1%를 기록
  - SARS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던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는 3/4분기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
  - 정부의 SOC관련투자, 수출 그리고 외국인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
    - \*올해 FDI 약 550억달러 유입 전망
  
-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와 금융불안요인이 상존
  - 부동산 및 자동차, 철강 등 일부 산업에서 경기과열 우려감이 제기되고, 위안화 절상 기대감에 따른 달러 매각으로 10월중 M2증가율이 21%이르는 과잉유동성에 따른 버블 우려
    - \* 정부는 M2증가율의 목표치를 18%에 두고 있음.
  - 주요투자은행들은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37~50% 추정
  - 중국 정부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로 9월에 금융기관들의 지급준비율을 인상(6%→7%)하고, 내년부터는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15%에서 3%p 인하할 예정
  
- 내년에도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
  - 올해 중국경제는 SARS충격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호조와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로 8.5%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IMF와 투자은행(J.P. Morgan, Deutsche Bank 등)들은 2004년 중국경제가 경기과열 우

려에 따른 긴축정책의 시행으로 성장률이 소폭 둔화하겠으나 7.5~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중국 국가신식증심(정보센터)은 2004년 고정자산투자규모는 올해보다 17% 증가한 6조1311억위안 전망.

<표 15>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	7.3	8.0	8.1	9.9	6.7	9.1	-	-	-	-
산업생산	9.9	12.6	14.5	17.2	15.2	16.6	16.5	17.1	16.3	17.2
소매판매	10.1	8.8	9.1	9.2	6.8	9.7	9.8	9.9	9.5	10.2
고정자산투자 <sup>1)</sup>	13.7	17.4	17.4	31.6	32.8	31.4	32.7	32.4	31.4	30.2
CPI상승률	0.9	-0.8	-0.6	0.5	0.7	0.8	0.5	0.9	1.1	1.8
M2증가율	14.4	16.8	16.8	18.6	20.1	21.0	20.7	21.6	20.7	21.0
수출(억달러)	2,667	3,256	930	864	1,039	1,174	381	374	419	409
증가율	(7.0)	(22.1)	(30.5)	(33.2)	(34.4)	(30.1)	(30.6)	(27.2)	(31.3)	(36.7)
수입(억달러)	2,436	2,953	826	874	985	1,128	365	346	417	352
증가율	(8.2)	(21.2)	(33.2)	(52.6)	(38.5)	(34.2)	(35.3)	(27.3)	(39.9)	(39.7)

주 1) 누계기준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2. 국제금융시장 : 금리 및 환율

### 국제금리 : 경기회복에 따른 상승 전망

- 경제회복세와 이에 따른 정책금리 인상설로 장단기금리는 4/4분기 들어 상승세
  - 3/4분기까지는 지정학적 불안요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추세와 경기회복지연의 우려로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 향후 미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 확산으로 각국의 장기금리는 빠른 속도로 상승
  
- 세계경제의 회복과 선진국들의 장기국채발행계획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각국들은 무역수지적자, 재정수지적자의 보전을 위해 국채발행에 대한 수요증가 예상
  - 투자은행들은 올해 연말 미국 장기금리가 4.45~4.7%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4년말에는 4.7~4.95%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표 16> 주요국의 장단기 금리 추이(기말기준)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2/3
단기 금리	미국	6.399	1.881	1.380	1.235	1.138	1.140	1.160	1.170	1.172	1.180
	일본	0.545	0.097	0.065	0.057	0.056	0.055	0.062	0.056	0.057	0.057
	유로	4.854	3.300	2.861	2.814	2.132	2.150	2.127	2.160	2.154	2.155
장기 금리	미국	5.120	5.030	3.810	3.577	4.263	4.450	3.940	4.300	4.330	4.410
	일본	1.630	1.370	0.909	0.667	1.268	1.464	1.394	1.436	1.304	1.465
	유로	4.850	5.000	4.204	3.872	4.127	4.197	3.995	4.331	4.457	4.460

주 : 단기금리는 3개월물 리보금리이며, 장기금리는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사용

단, 유로 장기금리는 독일 정부채 금리임.

자료 : ECB, Monthly Bulletin(2003.8), BCK

**환율 : 달러약세 기조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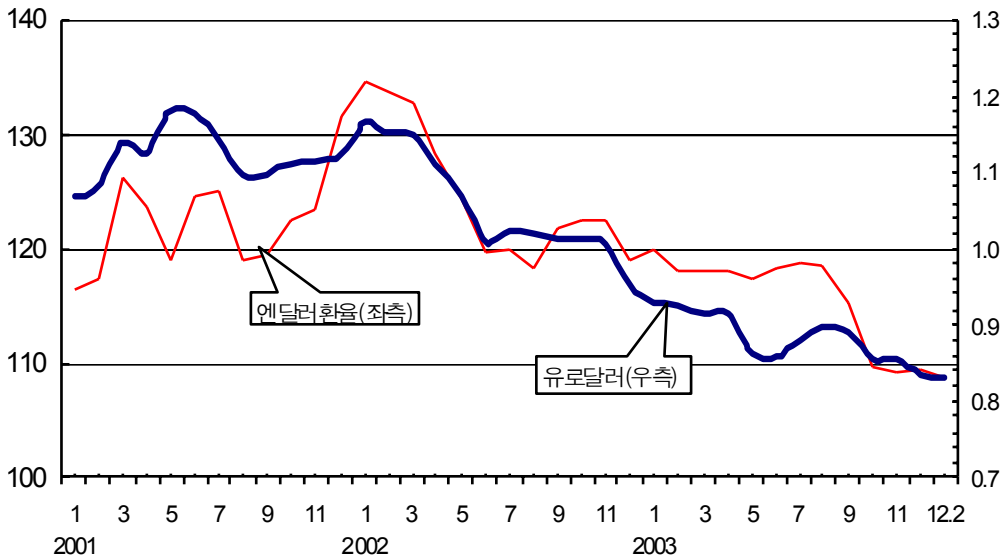
■ 미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약세, 엔화에 대해 강세 시현

- 미국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외수지 적자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달러/유로화는 처음으로 1.2달러에 이르러 연초 대비 15% 평가절하. 이외에도 중국,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마찰 가능성, 지정학적 위기감 고조 등도 달러화의 하락 압력을 더하는 요소
-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으로 소폭 강세
  - \*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11월중 1.6조엔이었으며 올 전체로는 17.7조엔.

■ 달러화 약세 기조 지속 전망

-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 부담이 약세의 근본원인으로 작용
  - \* 2004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5%에 이르는 5,800억달러, 재정적자는 GDP의 4%에 이르는 4,750억달러 전망
-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유로화의 강세기조가 2004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04년 말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CSFB은행은 각각 1.20달러, 103엔으로, 메릴린치증권은 각각 1.33달러, 90엔을 전망. 한편 골드만삭스는 달러화의 20% 평가절하를 기대하여 유로화는 1.44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림 14> 엔화 및 유로화 환율추이(평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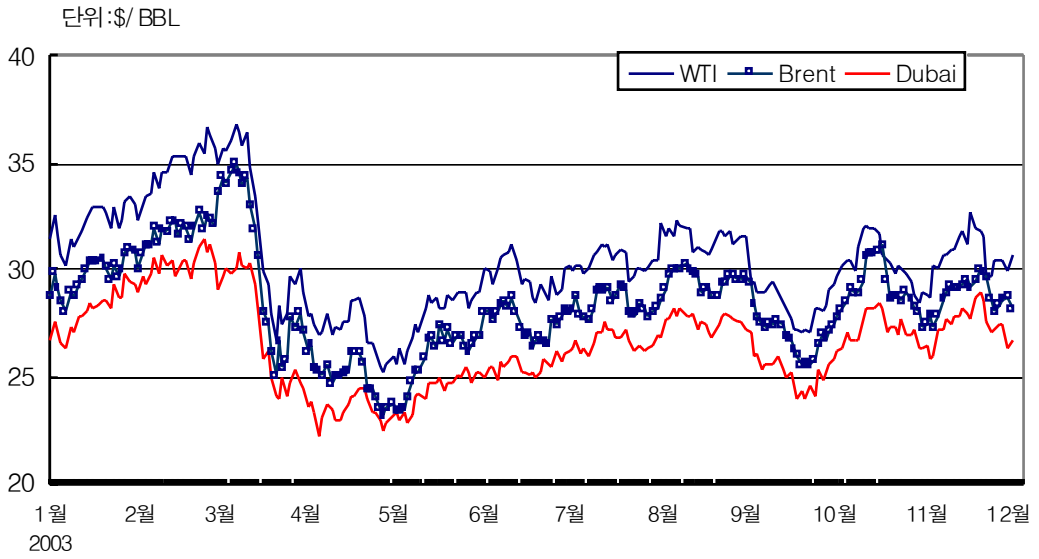
### 3. 원자재가격

#### 국제유가 : 내년 하반기 이후 하향 안정 전망

- 9월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배럴당 30달러(WTI기준)에 이르는 초강세
  - 중동에서의 테러확산, 선진국경제의 회복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석유수요의 증가, 그리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공급증가의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함에 따라 이라크전 이후 최고가 기록
- 당분간 유가는 강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배럴당 25\$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
  - OPEC은 달러화 하락으로 유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으로 내년 2월에 감산을 시사하고 있지만, 러시아 등 비OPEC회원국들의 증산정책이 유가안정에 기여할 전망
  - 향후 이라크의 원유생산기지의 회복에 따른 생산량 확대 기대로 하락세 예상



<그림 15> 국제 원유가격 추이



## 제 3 장

# 국내경제전망

### 1. 실물부문

내년 4.8%의 완만한 성장세 예상

#### (1) 2003년 전망

- 올 해 우리경제는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심각한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인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8%에 그칠 전망이다.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및 고용불안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현상이 지속되면서 연간으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예상됨
  - 설비투자도 경기부진,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노·사정 대립 등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연간 약 2%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부진과 함께 소비감소세가 연중 지속되었으며 고용사정도 뚜렷하게 악화되었음.
  - 다만, 수출은 미이라크 전쟁 및 SARS 등 대형악재가 비교적 빠르게 수습되는 등 대외여건 개선에 힘입어 호조세 지속
- <표 17>은 올 해 우리경제의 주요 거시지표 추세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식적 경기순

환 수축기들에 비해 어떠했는가를 비교하고 있음. 앞서 지적한 내수, 수출의 양극화외에도 여러 면에서 올 해 우리 경제의 위축 정도가 1998년을 제외한 과거 수축기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했음을 보여줌.

- 소비, 투자, 고용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외환위기 직후 수축기와 올 해의 상황이 비슷했음을 보여주는데 민간소비의 경우 1998년의 마이너스 11.7%에 비해 감소폭이 작으나 당시 수축기 전체기간 보다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음.
- 아울러 고용이 연중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도 특이하였는데 올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취업자수가 8만 6천명이 줄었음. 이러한 고용사정의 악화는 현재의 근로소득을 위축시키고 향후 기대소득의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소비가 감소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음.

<그림 17> 2003년과 1984년 이후 경기수축기의 주요지표 비교\*

수축기	GDP			고용	산업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상품수출		
1984.2Q~1985.3Q	6.9	7.1	9.7	2.0	9.0
1988.2Q~1989.2Q	8.0	9.2	11.2	3.2	7.8
1991.2Q~1993.1Q	6.7	6.5	3.7	2.1	6.8
1996.2Q~1998.3Q	1.9	-0.3	-12.4	-0.4	1.8
2003.1Q~2003.3Q	2.6	-1.1	-1.2	-0.2	4.0

\* 수축기내 각 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평균한 수치, (%)

(2) 2004년 전망

- <표 1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 경기수축은 심각도에 있어서나 수출이 크게 증

가하였던 점 등에서 1998년 유사한 면이 많음. 하지만 이런 유사점을 바탕으로 내년 예상되는 경기회복의 강도가 당시와 같이 왕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그 이유로는 올 해의 경기위축은 당시와 같이 뚜렷한 외부충격에 기인하지 않고 국내 요인에 의해 내수가 지속적으로 위축하였기 때문.

- 당시의 수출증가는 바로 내수진작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의 경우 그 동안 내수위축을 조장한 요인들의 해소가 병행되어야만 수출증대가 폭 넓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
-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미국경제의 본격적 회복과 중국의 지속적인 빠른 성장에 힘입어 우리의 높은 수출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내년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이런 수출호조와 내수 안정에 힘입어 2004년 우리경제는 4.8%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수출호조의 영향은 먼저 기업들의 투자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점진적으로 고용 및 소비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반기별 추세를 보면 내년 상반기 쯤 가파른 내수 위축세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 수출호조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나 그 동안 이루어진 추경 등 재정지출, 금리인하 등도 부분적으로 하락 국면 진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04년 하반기에는 내수도 가시적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04년에는 올 해에 비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고용상황 개선이나 가계신용문제 개선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소비의 연간증가율은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3%대에 그칠 전망.
- 투자는 2004년에는 올 해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전망. 건설 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한 설비투자는 내년 6%대의 증가 예상.
- 설비투자는 그동안의 투자부진으로 기업들의 유형고정자산이 2년연속 감소하여 생산

능력이 정체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투자증가가 필요. 10월 들어 80%를 넘는 제조업 가동률 추이와 9월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는 자본재 수입증가 추세는 내년 설비투자 회복전망에 긍정적인 요인.

※ 제조업 유형자산증가율: 2.4%(2000년)→-1.5%(2001년)→-2.8%(2002년)

- 그러나 노사갈등, 정국불안, 반기업정서 등 곳곳에 산적된 변수들이 단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됨

### (3) 2004년 전망의 위험요인

- 내년 경제호전 전망은 전적으로 수출증가에 의존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뚜렷한 위험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음.
  - 첫째는, 미국의 경기회복세와 중국 고성장추세의 지속여부. 지금 시점에서는 두 가지 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테러위협, 본격적 무역분쟁 발생 등 외부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음. 미국이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철강, 섬유직물 등의 수입에 대해 취했던 조치들이 계속될 경우 세계교역을 위축시키는 본격적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두 번째로는, 원/달러화 환율 변동 가능성임. 미국의 무역불균형이 조만간 개선될 조짐이 없으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고조됐던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내년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큼. 위안화의 절상조치는 바로 원/달러화 환율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것임. 원화 절상은 일단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올 해의 투자-고용-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 예상되지만 대외여건 악화 등의 예기치 못한 악재가 시현될 경우 올 해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존.

## 2. 물가부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 머물 전망

- 올 소비자물가는 2002년(2.8%)보다 높은 연간 3%중반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지속적인 총수요위축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에는 국제유가, 하반기중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수산물가격 급등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 물가의 경우 지난 7월까지 연속 4개월 전월대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8월 들어 오름세가 확대되었지만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올 3월 4.5%를 기록한 이후 3%를 유지하고 있음
- 2004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총수요 회복이 완만할 것으로 보여 물가는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
  - 원화 환율가치가 올 해 보다 강세를 보일 전망인 점도 물가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것임.
  - 내수회복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 들어 2%대 후반으로 상반기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전망.

### 3. 대외거래부문

#### 내년 경상수지 2003년에 비해 흑자폭 반감 전망

- 2003년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보다 오히려 확대될 전망.
  - 올 1~10월중 경상수지 흑자규모(73.9억달러)는 이미 지난 해 연간 흑자규모(60.9억달러)를 넘어섰음
  - 내수부진으로 수입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대외여건 개선으로 수출호조가 지속된 데 기인
- 2004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 해에 비해 축소될 전망
  - 내년 세계교역량증가가 올 해보다 2~3%p 높은 5~6%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대외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올해 높은 증가율(약18%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수출은 10%대 초반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하지만 수입도 내수경기 회복에 힘입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수지적자의 확대추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모두 올 해보다는 줄어들 전망.
  - 최근까지 지역별 수출실적에 따르면 對중화권 수출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음에 반해 對미국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는 향후 미국경기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 추가적인 대미국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임

**장기금리 : 향후 경기회복기대로 다소 상승 예상**

- 대외경제여건 개선, 향후 국내경기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장기금리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 호전전망, 중국경제의 성장세 지속 등의 대외경제여건 개선과 함께, 노후설비교체 필요성, 설비투자 감소세 지속 한계, 4/4분기 국내경기저점론 확산 등에 따라 기업투자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장기금리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으로 내년에는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6.4%로 점차 높아져 연평균 6.2%를 나타낼 전망

**원/달러환율 :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금년 연평균 1,193.5원에서 내년 연평균 1144.8원으로 완만하게 하락 (원화가치의 상승)할 전망
  - 미국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에 따라 미국 달러화 약세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내년 미국경제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어 달러화 약세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또한 아시아국가에 대한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원화환율 하락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



<그림 18> 2003~2004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 총생산	6.3	3.7	1.9	2.3	3.5	2.8	4.1	4.3	5.2	5.7	4.8
총소비	6.2	1.2	-1.4	-1.4	-0.9	-0.6	0.4	2.6	3.1	4.1	2.6
민간소비	6.8	0.7	-2.2	-1.9	-1.4	-1.2	0.2	2.6	3.1	4.2	2.5
고정자본형성	4.8	4.8	3.5	2.3	1.9	3.0	2.1	4.4	5.2	5.8	4.5
설비투자	6.8	1.6	-0.8	-4.7	-3.4	-1.8	0.4	6.3	8.8	9.8	6.2
건설투자	3.3	8.1	7.2	7.8	5.3	6.9	3.7	3.0	2.7	3.4	3.2
총수출	14.9	17.2	10.2	15.2	11.3	13.3	9.8	9.5	9.1	9.9	9.6
총수입	16.4	17.9	7.5	9.1	8.6	10.6	7.7	11.7	12.6	13.1	11.3
생산자 물가	-0.3	3.0	1.3	2.0	2.3	2.1	1.5	2.1	2.4	1.8	2.0
소비자 물가	2.8	4.1	3.3	3.2	3.6	3.6	2.4	2.5	2.9	2.7	2.6
경상수지	60.9	-17.2	25.2	41.7	36.6	86.3	4.6	5.4	15.0	15.1	40.1
상품수지	141.8	12.3	57.0	71.6	66.1	206.9	36.2	46.6	51.0	51.4	185.2
수출	1625.6	445.1	464.7	491.6	520.9	1922.3	505.9	519.4	540.3	575.3	2140.8
증가율 (%)	7.5	23.5	14.5	20.2	15.6	18.2	13.7	11.8	9.9	10.4	11.4
수입	1483.7	432.8	407.7	420.0	454.8	1715.3	469.6	472.8	489.3	523.9	1955.6
증가율 (%)	7.7	31.5	12.6	10.3	10.5	15.6	8.5	15.9	16.5	15.2	14.0
서비스, 소득 & 이전	-80.4	-29.5	-31.7	-29.9	-29.5	-120.6	-31.6	-41.3	-36.0	-36.3	-145.1
원/달러환율(평균)	1251.8	1201.6	1207.4	1175.1	1190.0	1193.5	1176.9	1152.7	1132.7	1116.8	1144.8
회사채수익률(연%,평균)	6.6	5.5	5.2	5.6	5.6	5.5	5.9	6.2	6.4	6.4	6.2
실업률 (%)	3.1	3.6	3.3	3.3	3.4	3.4	3.4	3.4	3.3	3.2	3.3

## 제 4 장

##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1.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영

- 최근 국내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불균형한 양상을 나타내면서 내년 대외경제여건에 좌우되는 불안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내수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역규제 강화, 급격한 원화가치 절상, 지정학적 위험, 질병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에 의해 우리 수출이 둔화될 경우, 불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최근 국내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 호조세는 올해 들어 11월 20일까지 대미수출은 2.7%의 증가한 반면 대중국수출은 48.2%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고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주요 4대 품목이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등 지역별, 품목별 편중현상 심화로 인해 우리 수출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음.
  - 중국에 진출한 22,000개의 한국기업이 생산소요 원자재의 38%를 국내에서 수입하여 대중국수출 증가에 일조하고 있어 이는 국내산업의 공동화 및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존재
- 내수침체의 원인이 손쉽게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어서 수출호조세가 내수회복에 연결되지 않고 있음
  - 국내 경제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내수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고용악화에 따른 소득감소, 가계부채 증가, 신용불량자 확산, 노사관계 악화 등에 따라 민간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당분간 내수침체가 지속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내수부진이 향후에도 개선조짐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고용창출에 주력할 필요
  -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책이 경기불안심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경우, 회복속도에 맞추어 점진적 금리인상 등 고려할 필요
- 재정정책의 경우, 금년 1, 2차 추경예산은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으로 발생한 약 8.4조원의 하반기 예산감소분을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 내년에 내수회복이 부진할 경우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도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적자재정도 감수
  - 최근 IMF도 ‘2003년 하반기 연례경제협의 결과보고서’ 를 통해 한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으므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5%까지 확대하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집행을 권고
-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년 물가 상승압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정책금리의 인하를 고려할 여지가 있음
  - 최근 OECD도 2003년 하반기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세계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기회복의 지속성 차원에서 각국은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2. 경제외적 불안요인의 해소를 통한 경제심리 회복

- 향후 국내경제회복에는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심리 위축을 조장하는 지정학적·정치적·사회적 불안요인의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북핵문제 등에 있어 한미공조체계 공고화 노력
  - 정부 경제정책 수립과정의 토론은 바람직하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리더십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신뢰성 제고
  - 이해집단의 갈등해소에 있어 법치주의에 기초하고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정부역할 정립이 필요
  - 내년 카드채 문제나 카드사의 유동성부족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구
  - 정부는 재신임정국, 대기업수사, 여야대립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 노사갈등 심화, 각종 규제나 제도 등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시급히 개선하거나 해소할 필요

## 3.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관계 정립

-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립 요망
  - 기업은 불법노동행위 추방, 근로복지 증진,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상태의 근로자 재고용 및 재취업프로그램 확대, 고용안정 등에 주력
  - 근로자는 불법파업행위추방, 노동생산성 향상, 자기개발 노력, 무리한 근로조건요구

자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에 노력

- 노동시장 유연성증대가 궁극적으로 고용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각한 경영 악화’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정리해고제를 ‘생산성 격차’에 기초한 실질적인 정리해고제 도입 추진

## 부 록

---

주요경제통계

※ 주요경제통계 ※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NI US \$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대비 (%)					
2000년	9.3	15.9	9,770	7.9	0.1	11.4	35.3	-4.1
2001년	3.1	2.1	9,000	4.7	1.3	-1.8	-9.6	5.3
2002년	6.3	6.3	10,013	6.8	2.9	4.8	6.8	3.3
2001년 1/4	3.8	4.6		1.9	0.6	-4.9	-9.7	1.0
2/4	3.0	2.5		4.4	1.0	-5.2	-11.0	0.1
3/4	2.1	-0.8		5.3	1.9	-2.5	-14.7	8.4
4/4	3.5	2.4		7.2	1.5	4.9	-2.2	10.0
2002년 1/4	6.2	4.2		8.9	5.3	6.6	3.8	9.7
2/4	6.6	6.6		7.9	4.4	5.4	7.5	3.8
3/4	5.8	5.5		6.2	1.5	0.5	7.8	-4.6
4/4	6.8	8.8		4.3	1.0	6.8	8.2	6.0
2003년 1/4	3.7	5.2		0.7	4.0	4.8	1.6	8.1
2/4	1.9	2.2		-2.2	3.6	3.5	-0.8	7.2
3/4	2.3	2.4		-1.9	2.4	2.3	-4.7	7.8

무역 · 국제수지								
연월	무역				국제수지		외환 보유액 <sup>D</sup>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0년	1,722.7	19.9	1,604.8	34.0	168.7	122.4	962.0	1,259.7
2001년	1,504.4	-12.7	1,411.0	-12.1	134.9	82.4	1,028.2	1,326.1
2002년	1,624.7	8.0	1,521.3	7.8	141.8	60.9	1,214.1	1,186.2
2002년 9월	139.0	11.7	129.9	10.9	10.9	5.3	1,166.9	1,227.8
10월	150.9	24.8	138.2	20.1	21.2	14.9	1,170.0	1,221.6
11월	152.0	23.1	139.9	21.3	13.6	11.2	1,183.3	1,208.8
12월	150.3	26.1	144.5	27.9	3.9	-6.5	1,214.1	1,186.2
2003년 1월	143.2	25.8	144.9	27.9	7.9	-4.2	1,229.1	1,170.1
2월	133.4	21.0	138.6	32.3	5.0	-1.1	1,239.9	1,193.7
3월	153.9	16.1	158.7	32.3	-0.6	-11.9	1,238.2	1,254.6
4월	157.3	19.3	147.6	17.5	12.7	-3.7	1,236.2	1,215.3
5월	146.8	3.6	135.2	6.5	16.8	11.8	1,283.4	1,205.9
6월	156.6	21.5	134.2	12.4	27.5	17.1	1,316.6	1,193.0
7월	154.4	15.2	148.7	14.1	15.7	4.3	1,329.1	1,179.7
8월	153.8	10.2	135.2	5.1	23.7	13.9	1,361.9	1,178.2
9월	170.6	22.7	145.4	11.9	31.2	22.5	1,415.4	1,166.0
10월	189.7	25.7	165.2	19.5	30.7	25.2	1,433.2	1,166.0
11월	186.2	22.5	157.6	12.6			1,503.4	1,185.2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전망과 정책과제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월	물가2)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3)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평균	기간평균	
2000년	2.0(0.6)	2.3(2.8)	4.1	8.6	2.2	5.6	9.35	734.2
2001년	-0.5(-2.5)	4.1(3.2)	3.8	5.8	6.9	9.6	7.05	572.8
2002년	-0.3(2.3)	2.7(3.7)	3.1	11.9	11.5	12.9	6.56	757.0
2002년 9월	0.3	3.1	2.6(2.9)	10.8	10.6	12.4	6.06	703.2
10월	1.0	2.8	2.8(3.1)	15.4	11.6	12.5	6.01	642.2
11월	1.6	3.5	2.8(3.0)	11.1	13.3	13.7	5.90	679.7
12월	2.3	3.7	3.1(3.0)	22.8	14.1	13.3	5.88	699.8
2003년 1월	2.8	3.8	3.5(3.1)	41.4	13.9	13.1	5.48	631.0
2월	2.8	3.9	3.7(3.0)	-5.6	13.3	12.5	5.25	591.6
3월	3.3	4.5	3.6(3.1)	-9.2	11.9	11.7	5.44	550.8
4월	1.9	3.7	3.3(3.2)	8.0	10.3	10.2	5.39	585.9
5월	1.0	3.2	3.2(3.4)	6.9	9.1	9.4	5.26	613.5
6월	1.1	3.0	3.3(3.6)	7.3	7.9	9.1	5.28	663.2
7월	1.6	3.2	3.4(3.6)	4.9	7.0	8.7	5.65	703.5
8월	1.9	3.0	3.3(3.5)	12.7	6.7	7.9	5.87	731.7
9월	2.1	3.3	3.2(3.5)	5.9	5.7	7.3	5.24	742.3
10월	2.2	3.7	3.3(3.7)				5.18	756.5
11월	2.4	3.4					5.53	789.1

주 : 2) (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4)	국내기계 수주5)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 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대비(%)									
2000년	16.8	78.6	9.8	6.0	11.7	30.8	15.1	-3.1	-5.6	-1.5
2001년	0.7	75.3	6.6	2.8	-1.0	-2.3	22.1	10.0	4.4	14.6
2002년	8.0	78.3	8.3	8.3	21.0	1.6	21.3	3.7	-10.5	12.7
2002년 9월	1.8	77.7	4.8	-0.8	5.0	3.4	-19.3	-10.8	-23.9	-2.0
10월	13.8	79.0	10.0	10.9	30.4	2.7	16.4	6.4	-13.2	18.3
11월	9.2	78.8	7.4	7.6	21.0	4.4	8.0	5.8	-16.4	20.9
12월	11.4	78.6	4.3	10.2	18.1	2.4	14.3	11.3	-4.4	23.7
2003년 1월	3.9	78.8	6.4	1.0	2.3	-7.7	20.9	20.9	10.7	25.9
2월	10.0	79.1	0.4	-1.8	9.7	-3.6	44.0	10.4	-21.5	31.6
3월	4.8	77.9	-2.2	-3.9	-42.6	0.1	-36.6	16.9	-4.7	33.3
4월	2.0	77.9	-2.8	-6.5	-1.2	-4.6	7.8	12.4	-3.8	24.4
5월	-0.9	75.8	-1.9	-11.2	1.2	-8.8	37.0	15.9	0.9	26.0
6월	8.4	77.6	-0.4	-4.2	-13.5	2.7	121.3	18.6	2.6	29.8
7월	0.7	73.8	-1.8	-3.6	-13.1	-11.0	80.3	18.5	7.2	26.9
8월	1.5	76.5	-2.6	-9.4	-23.8	-7.8	44.2	21.9	13.1	28.3
9월	6.7	78.8	-2.9	-6.2	17.3	-2.2	38.3	14.2	5.2	21.7
10월	7.4	81.1	-1.7	-6.6	4.0	-3.8	18.8	16.9	14.4	19.2

주 : 4)내수용 5)내수용, 선박제외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3년 12월 19일

1판1쇄 발행/2003년 12월 22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3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